

회원사소개



김영철 대표이사

<학력>

서울대 농화학과(1969)

서울대 행정대학원(1975)

<주요 경력>

1973.11~1979. 2 :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1979. 3~1990. 4 : 상공부 상무과장, 수출1.2과장

1993. 1~1994.12 : 통상산업부 무역조사실장

1995. 1~1998. 2 : 대통령 정부비서관

1998. 9~1999. 6 : 특허청 차장

1999. 6~2002. 6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한국중부발전(주)

"세계 초일류 발전회사로 도약"

김영철 사장 취임 100일(2002.10.31)을 맞이하여 지난 발전 산업노조의 파업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부발전(주)을 소개한다.

지난 2001년 4월 2일 전력산업구조개편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6개의 발전회사로 분리되면서, 한국중부발전(주)은 부채 1조 3360억원과 자본 1조 3260억원(자본금 1530억원)을 승계받아 자산규모가 2조 6620억원에 이르는 발전 전문회사로 탄생했다.



보령화력(유연탄)



서천화력(무연탄)



보령북업(LNG)



서울화력(LNG)

중부발전은 핵심발전소인 보령화력·보령복합을 위시하여 서천·서울·인천·제주화력(총 운전설비용량 6993MW, 2002년 9월 현재)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입찰시장을 통해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타발전회사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원가절감과 전력생산성 제고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전소 운영과 정비에서부터 자재·연료의 조달, 전력거래 및 재무·회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중부발전의 미래 가치 및 사회적 존재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중부발전의 1890여 명의 임직원은 각 분야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가절감과 설비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을뿐 아니라, 「제안」과 「건전건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경영을 촉진하고 있다.

김영철 사장은 “우리 회사는 발전노조 파업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혁신추진반 구성, ‘경영혁신과제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등에 의해 다양한 경영혁신과제를 선정·추진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업문화의 정착 노력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사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세계적 조류이며, 거스릴 수 없는 대세이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인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회사 경영구조 개선과 선진 의식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경쟁 원리에 따른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부발전은 발전사업의 경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회사의 핵심역량과 경쟁우위 요소를 발굴·개발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발전소 운영에 따르는 각종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적 비용 절감, 인력 전문화 및 통합 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전력생산성을 제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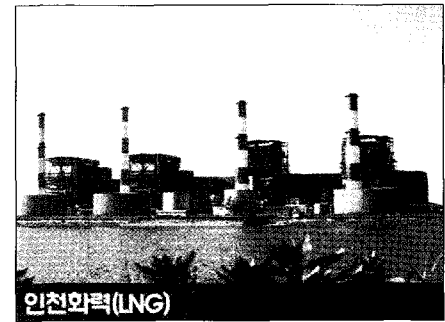
그리고 기본과 원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 집행하고 그에 따른 경영 실적 및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는 ‘투명경영’과 내·외부 고객들의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영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열린 경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고객과 지역사회, 투자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하며, 그들과 늘 함께하는 기업이 되고자 기업가치 제고 및 환경친화적 경영에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중부발전을 세계 일류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선진화된 경영능력, 앞선 기술, 진취적 기업문화를 갖춘 희망과 보람의 발전전문회사로 가꾸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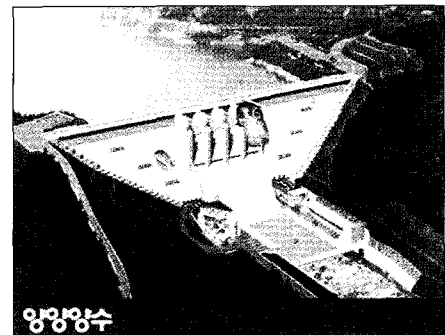
김사장은 “앞으로 민영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서 개개인은 물론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를



제주화력(유류)



인천화력(LNG)



양양양수



김영철 사장 취임식

추구하여 개개인의 내적 실력 함양은 물론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민영화에 따른 변화적응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조개편으로 시작된 발전회사간 경쟁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 혹은 10년 후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코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전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노사화합과 디지털 경영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희망과 보람」을 공유하는 세계 초일류 발전회사로 도약해 갈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지난 해 한전으로부터 분사 이후 경쟁체제에 대비하여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분야별 경영개선에 전력투구한 결과 금년도 4월까지 비용수익개선 효과 951억원, 건설투자비 557억원 절감을 달성하였고 2001년도 당기순이익 1571억원, 200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1357억원(당초 예상액의 195%)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비용개선 부문

설비운영 측면에서는 발전소 정비 비용절감은 물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발전소 경상정비중 輕정비는 위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자체 수행하고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는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통해 71억원의 위탁정비비용을 절감하였고, 발전설비 열효율관리시스템의 개발, 적정 혼탄기준 및 보조기기 적정 운영 등 발전설비 운영 최적화를 통하여 7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발전연료인 유연탄 구매에 있어서는 국제가격(일본)에 대비한 연간 인상률 최소화(20→16%), 현물시장 구매 확대 및 수송비 절감 등을 통하여 159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하였으며, 유연탄의 신규 장기계약(3년간 96만톤)으로 97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발전소 정비자재의 보유재고량 적정화, 단가계약의 확대 등으로 12억원의 평균재고를 줄이기도 하였다.

기타 경영관리분야에서도 비효율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기 위해 회사 발족과 함께 적극 권장하였던 제안과 건의는 231건의 제안과 658건(2002. 10월 현재)의 건의를 통하여 227억원의 투자비 및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분사시 한전에서 승계된 외화채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위험관리위원회 운영 등 적극적인 외환관리를 통하여 9억원의 환차익을 실현하였고, 양질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평가를 실시하여 AAA등급을 획득 장기자리의 금융자금조달 기반을 마련하였다.

발전소 건설원가 절감측면에서는 경제적 설계개념을 도입하고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여 294억원의 투자비를 절감하였으며, 인천복합화력발전소 준공일정 단축을 추진중에 있어 263억원의 이자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수익증대 부문

입찰량 증대를 통한 수익 향상을 위해 발전소 정비주기를 장주기화(A급, 5년 → 8년)하고 정비기간을 단축하여 연간 209억원의 수익증대에 기여하였다. 발전소 출력향상시험을 통해 보령화력 3~6호기 100MW[25MW(500 → 525MW)×4기], 제주 화력 2~3호기 8MW[4MW(75 × 79MW)×2기]의 출력상향 입찰운영으로 올 2월까지 약 160억원의 수익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그 외에도 발전 副産物인 석탄灰의 매각방식을 수익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54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탈황석 고도 전량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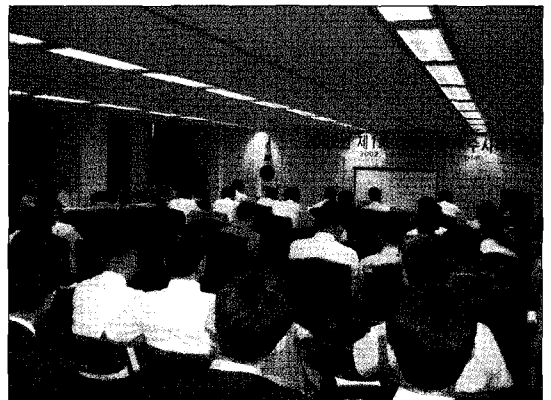
발전설비 운영

인적자원 개발

미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전문원 제도, 전문가그룹 운영, 보령화력 훈련센터조직 보강 등 인력양성 체계와 교육훈련체계를 정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력관리제도(CDP)를 도입, 지난해 12월 직원경력 D/B를 구축하여 적재적소배치,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시를 대비하여 발전운전요원 이외에도 전 기술직군 직원 216명의 발전소 운전능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한국중부발전은 전력경쟁시장에서 우뚝 서기 위하여 새로운 경영진을 주축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전노조 파업으로 인하여 勞使간 이완된 조직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영혁신을 추진중에 있다. 조직간, 직군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구성원이 여러부서 직원으로 편성된 111개 혁신추진반은 경영혁신의 날로 지정된 매주 목요일에 경영혁신과제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경영혁신과제를 효율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한 '경영혁신과제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개혁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신뢰와 협력의 열린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하는 경영혁신 활동은 중부발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다.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회

디지털 시대의 정보화 추진 선도

21C 정보화시대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통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그간 쌓아온 發電經驗 등의 Off-Line 기술을 최신 정보기술(IT)

에 접목하여 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장의 Trouble Memory 접수단계에서부터 정비관리, 자재구매 및 계약 등을 One-Stop Service로 처리하는 고도화된 디지털발전소 운영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구매분야에서도 발전회사 중에서는 최초인 지난 해 8월 입찰공고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비용 절감, 구매선 다변화로 구매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앞장섰다. 올해 9월까지 415건의 전자구매실적을 올렸고 현재는 국제입찰을 제외한 전 분야에 금액제한 없이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운송·보험 및 신용장 개설업무에 전자문서교환제도(EDI)를 활용하는 등 구매업무 분야에서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경영

한국중부발전은 기업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환경경영방침을 설정하는 등 환경과 경영의 상생원리 구현을 기업활동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국제수준의 환경경영

체제(ISO 14000)의 구축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환경친화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업활동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분석, 환경오염 예방과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든 설비는 국가 환경규제 준수를 기본으로 함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리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발전소인 서울·인천화력에 약 300억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설비인 질소산화물 저감설비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보령화력, 서천화력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 고효율 배연탈설비 및 전기집진기의 관리에도 힘써 발전소 주변의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석탄회와 탈황석고를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2010년까지 발전소 폐수의 재이용률을 80%까지 증대시켜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고급어류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인근 어장에 방류하거나 어민에게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소의 적기 건설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이 필수적이라 생각

된다. 이러한 점에 저희 중부발전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차질없는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발전소 건설사업은 양양양수 1~4호기(용량 1000MW: 250MW×4기, 2006년 6월 준공), 인천복합(용량 450MW, 2006년 6월 준공)과 보령화력 7, 8호기(용량 1000MW: 500MW×2기, 2008년 12월 준공)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양양양수 건설사업은 현재 상·하부저수와 지하발전소의 토목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 10월부터는 주기기 설치를 시작하여 올해 계획공정률 63.17%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 준비단계 사업으로 인천복합화력은 금년 11월까지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4월 본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기존 보령화력발전소 부지를 활용하여 50만kW급 석탄화력 2개 호기를 건설하는 보령화력 7, 8호기는 금년 9월에 발전소 설계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까지 주기기 공급사를 결정하여 2005년 3월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건설업무를 준비중에 있다.

특히 건설 준비중인 발전소에 대하여는 기존 부지 및 공용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제어설비 중앙집중화와 자동화를 통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우수한 최신에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며, 건설사업 발주 단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기존의 사업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인력 슬림화는 물론 건설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에 기여토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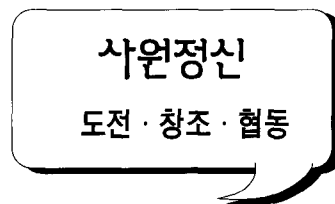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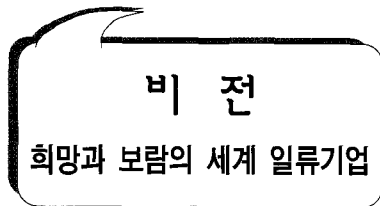
기술개발과 품질 및 안전관리활동

발전사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발전설비 핵심 분야의 운영과 정비기술에 관한 10개 주력 연구개발과

제를 한국전력의 전력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12건의 신규과제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와 함께 선진외국 신기술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설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체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정하여 용역, 시공, 기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보증 능력의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분임조 활동을 활성화하여 끊임없이 서비스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개선팀 활동 결과, 보령화력 소속 「플러스- α 분임조」는 연속 3년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재해발생시 대응절차 제정·운영 등으로 전직원의 안전마인드 확산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전설비의 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고 있다.



· 연 혁 ·

- 2000. 12. 8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2000. 12. 23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 공포
- 2001. 3. 16 발전자회사 분할계획 韓電 주주총회 의결

- 2001. 3. 23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임원 선임 창립총회
- 2001. 4. 2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발전사업 개시